

보도시점 2023. 10. 11.(금) 10:30
(2024. 10. 11.(금) 석간)

배포 2024. 10. 10.(목) 16:00

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, 신규 ‘구축형 연구개발사업*’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‘맞춤형 심사제도’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(금)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우주발사체,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

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(5.17.)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·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. 다만, ‘구축형 연구개발사업’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.

이에 정부는 ‘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·관리 시스템 혁신방안’ (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, 6.4.)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‘심사제도’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,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.

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(사업단장 등) 및 실무책임자, 사업관리(Project Management) 전문가,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하였다.

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,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·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**맞춤형**으로 실시하며, **전문가 중심** 검토를 통해 **전문성을 강화**할 예정이다. 또한 **필수사항** 중심으로 검토하고 **유연하게**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“**현장 친화적인**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**다양한 현장 연구자의**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”이라며, “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**재정 투자 효율화**와 사업의 **안정적 추진**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	책임자	팀 장	이정수	(044-202-6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홍주	(044-202-694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추진배경

- R&D 예타 폐지(5.17, 국가재정전략회의) 및 후속방안*의 이행 관련 구축형 R&D사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

* 「대형 국가R&D 투자·관리 시스템 혁신방안」(‘24.6.4,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)

□ 기획위원 구성·운영(안)

- (구성) 대형R&D사업 총괄(사업단장 등) 및 실무책임자, 사업관리(Project Management) 전문가, 이용자 그룹 등 다양한 산·학·연 전문가 15인 이내*
 - * 혁신본부·KISTEP 자체 발굴, 수요자(이용자 그룹)는 관계부처 추천 통해 구성
- (운영) 심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지침(안) 마련시(12월 예정)까지 주기적 운영(월1회)
 - Kick-Off(10.11(금)) 이후 약 2주간 심사제도 주요내용*에 대하여 위원별 집중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보완(10~12월)
 - * 심사제도의 대상, 구비요건, 준비수준, 검토 항목 및 절차, 의사결정체계 등
 - 심사제도와 연계하여 현행 구축형 R&D사업 관리제도(총사업비관리, 설계적정성검토, 타당성재조사 등)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

□ 추진일정

- 기획위 구성, 사례조사·분석을 통한 심사 주요내용(초안) 마련 (~10월)
- Kick-Off 회의 (10.11) 및 기획위원 집중검토 (약 2주)
- 2차 기획위원회 및 관계부처, 지자체, 전문기관 의견수렴 (11월 중)
- 심사지침 초안마련 및 3차 기획위원회 (12월)
- 심사지침(안) 마련 (1월)